DSLR을 이용한 저예산 영화 제작에 관한 연구

단편영화 <스토리타임>을 중심으로

A study of producing a low budget film using a DSLR camera focusing on the short movie 'STORYTIME'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뉴미디어학부

최 준 열

DSLR을 이용한 저예산 영화 제작에 관한 연구

단편영화 <스토리타임>을 중심으로

A study of producing a low budget film using a DSLR camera focusing on the short movie 'STORYTIME'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뉴미디어학부

최 준 열

DSLR을 이용한 저예산 영화 제작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이동환

이 작품을 석사학위작품으로 제출함

2012년 06월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뉴미디어학부

최 준 열

DSLR을 이용한 저예산 영화 제작에 관한 연구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뉴미디어학부

최 준 열

최준열의 석사학위작품으로 인준함

심사위원장 이동환 인

심사위원 이정연 인

심사위원 김중 인

2012년 06월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작 품 규 격 서

1. 작품제목 : 스토리타임
2. 작품형식(포멧) : 1920*1080 프로그레시브 24fps / H.264 (최종결과물의 원래 해상도는 1080p이지만, 교학처에 제출되는 영상의 해상도는 이와 다를 수 있음)
3. 사 이 즈 : 14분 31초
4. 제작년도 : 2012년 3월
5. 주요스텝 :

감독, 각본, 편집 - 최준열

오프닝 애니메이션 - 최준열

촬영 - 임희철

현장녹음 - 김원창

출연 - 최준열, 심종환, 이승하, 이세일

목 차

제 1 장 서 론 1

1.1 문제제기 1

1.2 연구목적 2

제 2 장 관련사례 연구 5

2.1 관련작품 연구 5

2.1.1 하우스 시즌 6 5

2.1.2 심야식당 8

2.1.3 트릭 9

2.1.4 THX1138 11

2.1.5 나는 금성에서 왔다 13

제 3 장 스토리타임의 기획 15

3.1 시놉시스 15

3.2 등장인물 16

3.3 시나리오 16

3.4 제작시스템 연구 31

3.4.1 동시녹음에 필요한 것 31

3.4.2 편집에 필요한 것 32

제 4 장 스토리타임의 제작과정 36

4.1 촬영과정 ····· 36
4.1.1 나레이션 ····· 36
4.1.2 씬 1 ····· 38
4.1.3 씬 2 ····· 39
4.1.4 씬 3 ····· 40
4.2 CG오프닝과 엔딩 제작과정 ····· 41
4.2.1 CG오프닝 ····· 41
4.2.2 엔딩 ····· 42
4.3 DSLR영화의 화질 ····· 42
4.4 DSLR영화의 음질 ····· 45
4.5 DSLR영화의 용량과 배포 ····· 46
4.5.1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방법 ····· 46
4.5.2 인터넷을 통해 파일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 ····· 47
4.5.3 광디스크로 전달하는 방법 ····· 48

제 5 장 결 론 ····· 49

참고문헌 ····· 51
ABSTRACT ····· 53

그 림 목 차

[그림 1] 캐논 5D Mark II 관련 기사 ····· 5
[그림 2] 하우스 시즌 6의 마지막 에피소드 ····· 7
[그림 3] 심야식당 ····· 8
[그림 4] 트릭 ····· 9
[그림 5] THX1138 ····· 11
[그림 6] 나는 금성에서 왔다 ····· 13
[그림 7] 캐논 XLR단자 ····· 31
[그림 8] 쥬스드링크의 CX231(왼쪽)과 비치텍의 DXA-5D(오른쪽) ····· 32
[그림 9] H.264 로고 ····· 32
[그림 10] E1 플러그인을 써서 캐논의 MOV를... ····· 34
[그림 11] 클립을 임포트 하는 순서 ····· 35
[그림 12] 소니 HX9V ····· 36
[그림 13] 휴대용 리그+600D+CX231 ····· 37
[그림 14] 씬 1 주요 장면 ····· 38
[그림 15] 씬 2 주요 장면 ····· 39
[그림 16] 씬 3 주요 장면 ····· 40
[그림 17] 오프닝 주요 장면 ····· 41
[그림 18] 5D Mark II, 7D와 레드원, 수퍼35mm의 사이즈 비교 ····· 42

표 목 차

[표 1] EOS 무비 플러그인 E1의 주요 특징 ····· 33
[표 2] 1080p H.264 영상의 원활한 재생을 위한 컴퓨터의 조건 ····· 47

국문초록

DSLR을 이용한 저예산 영화 제작에 관한 연구

뉴미디어학부 최준열
지 도 교 수 이동환

스토리타임은 캐논 600D로 촬영된 단편 SF영화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토리타임의 촬영을 통해 저예산 SF영화 제작에 있어서 DSLR이 어느 정도의 효용성을 가지는지 가늠해 보는 것이다. 최근 하우스 시즌 6의 마지막 에피소드 전체를 캐논 5D Mark II로 촬영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고, 캐논의 다른 기종들도 영화, 드라마 현장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나, DSLR 영화제작의 체계적인 워크플로우에 대한 연구 자료는 잘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토리타임이라는 단편영화를 실제로 제작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DSLR 영화제작의 구체적인 워크플로우를 제시하고자 하였고, 별도의 전문 인력 없이 감독 혼자서 쉽게 특수효과를 추가하는 방법론도 함께 제시하고자 하였다.

DSLR과 각종 PC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하면 저예산으로 높은 퀄리티의 영화를 완성할 수 있다는 가정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 등장하는 SF단편영화 스토리타임은 해당 가정이 옳았다는 것을 구체적인 결과물을 통해 증명해 내고 있다.

한국에선 알찬 저예산 영화를 찍는 방법론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분위기이지만, 이러한 분위기를 바로 잡는 데에 본 연구가 잘 활용되었으면 한다.

제 1 장 서 론

1.1 문제제기

DSLR(Digital Single-Lens Reflex)은, 디지털 방식의 일안 리플렉스 카메라를 의미하며, 일안 리플렉스 카메라란 1개의 렌즈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카메라를 의미한다. DSLR의 바디 내에는 개폐식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고, 빛은 언제나 하나의 렌즈를 통해 바디 내부로 들어온다. 보통 때에는 렌즈로 들어오는 빛이 반사경을 통해 90도로 반사되어 뷰 파인더로 전달되지만, 셔터가 눌리면 반사경이 오픈되면서 빛이 CCD 센서에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다. DSLR이 아닌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는 두 개의 렌즈를 사용하며, CCD에 빛을 보내주는 렌즈와 뷰 파인더로 빛을 보내주는 렌즈가 따로 존재한다(mwultong Blog, 2007).

DSLR의 급속한 대중화로 인해 현재는 일명 '디카'라고 불리는 일반 카메라를 구입하는 구매자 층이 많이 줄었으며, 시장은 포화상태가 된 지 오래이다. 즉, 너무나 대중화가 된 나머지 더 이상의 DSLR은 잘 팔리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에 소니, 캐논 등의 각 메이커에서는 침체된 DSLR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Full HD 동영상 촬영 기능을 추가하기 시작했고, 이 중 프로들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캐논의 5D Mark II였다. 5D Mark II는 출시된 이래 끊임없이 레드원(RED One)과 비교대상이 되어왔으며, 특히 NRK베타라는 닉네임의 노르웨이 작가에 의해 진행된 두 기종의 1920*1080 동영상 비교 테스트에서는 5D Mark II가 레드원에 비해 색 표현력이 더 뛰어나다는 평가가 나왔다(베타뉴스, 2009). 여기서 중요한 것은 5D Mark II의 바디는 2700달러대인데 레드원은 1만 7500달러대라는 것이다.

영화업계에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영화제작비가 크게 절감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 때 팽배하였으나, 스타워즈 에피소드 I의 촬영에 사용되었던 소니의 HDW-F900R 등은 디지털 카메라임에도 코스트 저하에 대한 영화업계의 기대치를 거의 충족시켜주지 못했다(손보욱, 민경원, 2012). 하지만 2700달러대인 5D Mark II는 코스트 저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치를 너무나 잘 충족시켜 주었고, 하우스 시즌 6(폭스 TV)의 마지막 에피소드 전체가 캐논 5D Mark II로 촬영된 것을 계기로 DSLR로 상업영화나 드라마를 어떻게 찍냐고 불안해하던 사람들에게 확신을 안겨주었다.

DSLR은 저렴한 가격, 렌즈 확보의 용이성, 높은 동영상 퀄리티 때문에 앞으로도 오랜 기간 영화,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활발하게 사용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DSLR로 영화를 제작하는 체계적인 워크플로우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유의미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스토리타임은 DSLR을 이용한 영화제작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든 영화이며, 15분 분량의 단편 SF영화인 본 작품은 기본적으로 캐논 600D와 휴대용 믹서, 붐 마이크를 사용해 촬영되었다. 본 논문은 스토리타임의 제작과정에서 직면하였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그 해결과정 또한 제시하여 DSLR로 영화를 찍기 원하는 다른 크리에이터들에게 참고가 되고자 하였다.

1.2 연구목적

스토리타임은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다.

첫째, DSLR 영상제작의 효율적 공정을 연구한다. 캐논이나 소니의 DSLR은 AVCHD 또는 H.264로 불리는 코덱을 채택하고 있으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기존의 디지털 영상에 비해 편집 공정에서 크리에이터의 추가지식이 많이 요구

된다. H.264는 기존 영화 인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생소한 포맷이며, 아무 소프트웨어에서나 편집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캐논 DSLR의 H.264 기반의 MOV 파일들을 편집할 때 어떤 방법론들이 사용가능한지, 그리고 각 방법론들의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둘째, DSLR영화에 저비용으로 손쉽게 CG를 접목하는 실험을 진행한다. DSLR동영상의 세계는, 최대 해상도가 1920*1080(이하 2K)으로 제한되어 있는 특이한 세계이다. 만약 자신이 가지고 있는 촬영 소스가 고가의 장비로 촬영된 4096*2160(이하 4K) 해상도의 소스라면 그것을 편집하고 색보정하는 것만도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엄청난 작업이 되겠지만, DSLR로 찍힌 영상은 어차피 최대 해상도가 2K이며, 가정용 PC에서 불러와서 여러 가지 특수효과를 추가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다. 특히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 등의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하면 B급 SF영화 정도의 특수효과는 손쉽게 낼 수 있다. 스토리타임은 어도비사의 프리미어 CS5와 애프터 이펙트 CS5를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두 소프트웨어로 인해 영화에 우주선을 등장시키는 게 가능해져서 스토리 구상면에서도 많은 자유도가 있었다.

셋째, 저예산 SF영화 스토리텔링의 새로운 방향을 실험한다. 70년대의 스타워즈, 기동전사 건담을 비롯하여 많은 SF영화, 애니메이션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모티브로 시나리오가 쓰여졌다. 당시 시점에서 봤을 때 2차 대전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였고, 당시는 2차 대전을 모티브로 한 SF영화 뿐 아니라 그냥 2차 대전 자체를 소재로 한 전쟁영화들도 상당히 좋은 흥행을 하던 시대였다. 그리하여 SF영화들은, 대게 2개의 세력이 전쟁을 벌인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으며, 적국은 거의 독일군의 느낌을 풍겼었다. 스토리타임은 2명의 화성인이 지구를 방문해서 소정의 목적을 가지고 조사활동을 벌인다는 참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터넷상에 정리되어 있는 UFO, 외계인 관련 자료들 중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들만을 선별하여 작품에 활용하였다.

기존의 외계인 소재의 영화들은 거의 <외계인=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무조건 파괴하는 무식한 괴물>의 공식에 따라 시나리오가 만들어졌으나, 본 작품은 화성이나 금성 등의 다른 행성에도 우리와 같은 지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정상적인 사회가 있다는 발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외계문명은 완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투명한 사회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을 속이지 않으며, 따라서 지구와 같은 종교제도는 그런 행성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다소 파격적인 설정을 가지고 있다.

시나리오 상에서 지구로 파견된 2명의 화성인의 신분은 군인이며, 각자의 역할(과학장교와 정보장교)이 있으며, 과학장교는 지구문명의 모든 것을 논리적,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려 하며 지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지만 정보장교는 논리보다는 따뜻한 이해의 시선에서 지구를 바라본다는 설정을 통해 두 캐릭터 사이에 명확한 차별을 두었다. 과학장교는 지구의 부정적인 면만을 보고 금방 '지구를 당장 파괴하자'는 결정을 내려버리는데, 그런 과학장교를 열심히 말리는 정보장교의 애처로운 모습이 본 작품의 주요 코믹요소라고 하겠다. 또 하나의 코믹요소는, 과학장교가 어쩐 일인지 지구인 여성과의 교제에 매우 관심이 많다는 설정이다. 과학장교는 지구를 좀 더 잘 알고 싶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과학장교의 너무나 직설적인 언행 때문에 연애가 잘 안 풀리는 것, 지구를 당장 멸망시키려는 결정적인 순간에 지구인 여자의 문자 때문에 지구멸망이 연기되는 것 등등도 본 작품의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스토리타임은, DSLR과 여러 가지 PC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하면 높은 완성도를 유지하면서도 예산은 적게 드는 SF영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한 영화이다. 본 작품을 통해, 전혀 새로운 스토리텔링과 DSLR, 각종 PC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저예산 SF의 가능성을 실험해 보고자 한다.

제 2 장 관련사례 연구

2.1 관련작품 연구

본 연구에서는, 스토리타임의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영감을 얻기 위해 많은 해외작품들을 벤치마킹 하였다. 주로 '저예산 영화의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효과적인가'와 '지구문명을 비판한 다른 작품들은 주인공 캐릭터를 어떻게 설정하고 주인공의 주변 환경을 어떻게 설정했나'의 관점에서 참고를 하였다.

2.1.1 하우스 시즌 6

Canon 5D Mark II used to shoot entire House season finale, director says it's 'the future'

By *Vladislav Savov* posted Apr 13th 2010 at 8:02AM

May 17, folks. That's the date when the grumpy doctor you wish you were and the snazzy camera you wish you owned will join forces on American network television. The final episode in this season's run of *House* has been shot exclusively using Canon's 5D Mark II, and the show's director Greg Yaitanes has been taking questions about the experience on Twitter. *PetaPixel* have helpfully collated the Q&A session into a coherent pseudo-interview, which you'll be able to find at the source below. The major takeaway is that the crew liked the experience and didn't have to do an overwhelming amount of work to adapt to the different shooting method. Guess after SNL and its own movie, the 5D Mark II just *had* to go and do a guest appearance on its favorite TV show.

54 diggs

[Thanks, Ben K]

VIA *Philip Bloom*
SOURCE *PetaPixel*

DISCUSS 75

[그림 1] 캐논 5D Mark II 관련 기사
(그림 출처: engadget, 2010)

미국 폭스 TV에서 방영하고 있는 하우스는, 주인공인 닥터 하우스와 3명의 제자가 등장인물인 옴니버스 형식의 의학 드라마이다. 많은 미국드라마가 그렇듯이 각각의 에피소드가 연결성이 없으며, 주인공인 그레고리 하우스는 천재적인 전염병 전문의이지만 다리에 장애가 있어 지팡이를 짚고 다니며, 성격이 매우 괴팍하다. 하우스 시즌 6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5D Mark II로만 촬영되어 국내외적으로 많은 화제가 되었기에, 5D Mark II의 영상 퀄리티를 알기 위해서 해당 에피소드를 입수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관람하고 나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았다.

다음은 여러 매체들을 통해 발표된 5D Mark II 관련 보도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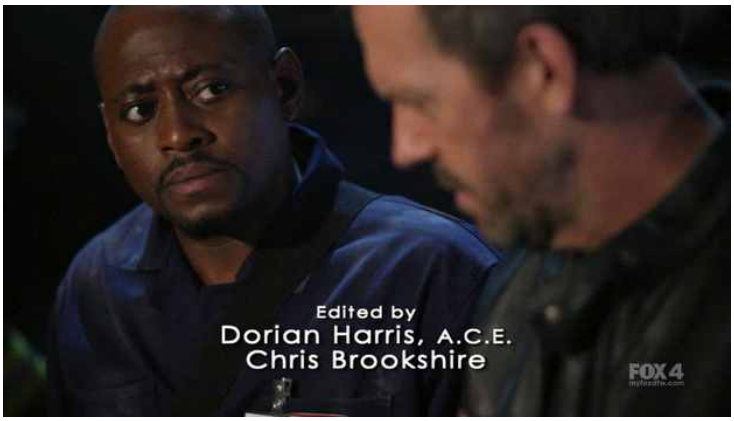
미국드라마 House(Fox TV)의 Season 6의 마지막 에피소드 전체가 Canon 5D Mark II와 Canon EF렌즈로 촬영되었으며,
촬영한 그렉 야이타네스(Greg Yaitanes) 감독은
트위터(http://twitter.com/GregYaitanes)를 통해, EOS 5D Mark II의 풀HD 영상에 감탄했다며 "얕은 심도 덕분에 배우의 얼굴과 감정표현을 더욱 부각 할 수 있었고 영화의 느낌에 더욱 근접한 화면을 담을 수 있었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도 촬영이 용이하다는 점은 기존 영상 장비와 차별되는 강점"이라고 밝혔다(캐논 코리아, 2010).

이 보도 자료는 5D Mark II가 마치 최상의 해답인 것처럼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하우스 시즌 6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보면, 전통적인 필름 카메라로 찍힌 다른 에피소드에 비해 다소 어색해 보인다. 보도 자료에는 "얕은 심도 때문에 배우의 감정표현에 더 유리했다"고 나와 있지만, 지나치게 얕은 심도 때문에 오히려 시청자가 피로를 느끼게 되는 측면이 있으며, 화면속의 모든 인물이 선명하게 찍힌 기존 드라마에 익숙한 시청자의 입장에선 군데군데 흐리게 나오는 5D Mark II의 화면이 다소 이상해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인 미국 드라마에선,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 씬에서는 누가 말을

하고 있건 두 사람 모두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5D Mark II는 지나치게 낮은 심도로 인해 한 번에 두 인물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림 2를 보면, 왼쪽의 포먼과 오른쪽의 하우스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초점이 포먼에 맞아서 하우스는 흐릿하게 찍혀있다. 더군다나 이 씬은 포먼은 가만히 있으면서 하우스만 대사를 하는 씬이었다.



[그림 2] 하우스 시즌 6의 마지막 에피소드

gypsyeye1라는 트위터 아이디를 가진 한국의 한 영상 작가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5DmarkII로 다큐찍을때 1.너무 얕은 심도에만 의지하면 보는이가 쉬 피곤해진다. 조리개를 열고 조이는 것도 피사체의 성격에 맞게 연출의도를 가지고 그때마다 다른 판단을 해줘야헌다.**"라고 말했다. 5D Mark II는 주로 얕은 심도로 촬영하길 원하는 감독들에게 인기가 높은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무조건 얕은 심도가 답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5D Mark II 이외의 타 DSLR을 이용해서 찍을 경우엔 심도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면 하우스 외에도 보다 다양한 실제 사례가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즌 6의 마지막 에피소드만이 5D Mark II로 촬영된 뒤, 이후 시즌들은 다시

필름카메라로 촬영된 것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2.1.2 심야식당(深夜食堂)

[그림 3] 심야식당
(그림 출처: Daum 영화)

심야식당은 일본 TBS에서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 방영된 심야 드라마이며, 최초의 심야식당의 인기를 등에 업고 심야식당 2기가 최근에 제작되었을 정도로 일본에서 매우 인기가 높은 드라마이다. 스토리가 서로 연결되는 10-12개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일본 드라마와는 달리, 서로간의 에피소드가 독립적이며, 식당 주인만 고정 출연진일 뿐, 식당에 찾아오는 손님은 오다기리 조 등 에피소드마다 계속 바뀐다. 심야식당이라는 일본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신주쿠 하나조노 근처의 골목에 있는 마스터 혼자서 운영하는 작은 밥집을 무대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심야 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영업하기 때문에 단골손님 사이에서 <심야식당>이라 불린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다.

마스터가 경영하는 식당 세트에서 인물들이 대화를 나누는 씬들이 러닝 타임

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에피소드를 1개만 보고 나도 제작진의 의도가 가급적이면 저예산으로 만들어보자는 것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가끔 회상씬이 나올 때 다른 장소에서 촬영한 분량이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영상은 식당 세트가 배경이며, 아마도 감독은 장소를 한군데로 제한해서 가급적 저예산으로 만들되, 인물들 간에 오가는 재미난 이야기들로 승부를 보자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심야식당을 시청한 많은 일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과연 인물들이 서로 나누는 다양한 이야기가 아기자기하고 재미있다는 것이었으며, 이는 본 작품의 제작방향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스토리타임의 초기의 방향은 한국판 심야식당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으며, 인물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도 커피숍 한군데로 제한할 생각이었으나, 학생작품의 특성상 많은 인물이 등장하기 어렵고 결국 계속 똑같은 사람이(최준열과 심종환) 대화를 나누는 포맷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사람만 화면에 나오는 지루함을 조금이라도 상쇄하기 위해서는 장소라도 자주 바뀌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저예산으로 만드는 대신 인물들이 나누는 재미난 이야기로 승부를 보자는 핵심 컨셉은 계속 유지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심야식당과 어느 정도의 공통점과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공존하는 특이한 컨셉으로 완성되었다.

2.1.3 트릭

[그림 4] 트릭

TV 아사히(テレビ朝日)에서 방영된 마술 소재의 코믹 드라마인 트릭은 일본에서는 모르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국민드라마이며, 대부분의 일본 드라마가 10개 정도의 에피소드에서 끝나버리는 단발성인 반면에 트릭은 3기까지 제작이 되었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나카마 유키에는 이 작품을 통해 톱 탤런트 급으로 성장하였으며, 1기, 2기, 3기의 주제가를 부른 오니츠카 치히로도 이 작품을 통해 대중성 있는 여가수로 거듭나게 되었다. 또한 극장판 트릭은 3탄까지 제작이 되었다.

2000년에 방영된 1기의 평균 시청률은 7.94%를 기록하였고, 2기(2002년)와 3기(2003년)의 평균 시청률은 각각 11.63%, 15.62%를 기록하였다(위키피디아, 2012).

대략의 줄거리는 이렇다. 주인공 야마다 나오코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뒤를 이어 마술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지만, 수입이 변변치 않아 수시로 집주인에게 월세를 빨리 내라는 독촉을 당한다. 그렇게 독촉을 당할 때마다 항상 우에다 지로 교수가 시간 맞춰 등장하여, 내가 월세를 내줄 테니 지방 어디어디에 같이 좀 가자는 제안을 한다. 우에다 지로의 제안은 거의 항상 “지방 어느 곳에 사이비 단체의 교주가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신기한 능력을 선보이고 있는데, 그 능력이 사기인지 진짜인지 밝혀달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거의 지방단체의 어떤 사람이 우에다 교수를 찾아와 “교수님은 저명한 분이니 이 사기를 간파하실 수 있을 겁니다”라고 청탁을 하지만, 우에다 교수는 자기가 간파할 자신이 없으니까 항상 야마다 나오코를 찾아가 부탁을 하는 것이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항상 우에다 교수가 모든 공을 차지한다.

야마다 나오코는 자신이 직업 마술사이기 때문에 항상 사이비 단체 교주의 트릭을 쉽게 간파해 내며, 마지막은 대부분 교주의 자살로 끝을 맺는다. 트릭의 원리가 밝혀졌으니 교주는 더 이상 아무 권위가 없게 되어 자살 외에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처음에는 코믹한 분위기로 시작해서 마지막엔 교

주의 비극적인 자살로 끝맺는 독특한 흐름을 가진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트릭은 지구문명을 비판한 작품이라기 보단, 항상 숭배의 대상을 필요로 하는 대중의 나약함에 일침을 가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트릭의 작가는 현란한 마술쇼를 보며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무지몽매한 신도들을 시청자에게 보여주면서, 항상 존경할 대상을 열렬히 찾아 헤매는 현대 사회의 우리들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고자 했던 것 같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사이비 단체 신도들의 모습은 사실 애플의 제품 발표회에서 스티브 잡스가 등장하면 열렬히 환호하는 애플 애호가들의 모습과도 맞아 떨어지고, 성당이나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하고도 꽤 그럴싸하게 일치된다. 이 드라마가 기독교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언급한 적은 없고 항상 '어느 사이비 단체'라는 식으로 추상적으로 묘사가 되지만(실제로 작가는 기독교에 별 관심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무지몽매한 믿음에 대한 강한 비판 정신을 가진 주인공 야마다 나오코의 모습은 스토리타임의 과학장교의 대사나 행동에 상당히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2.1.4 THX1138

[그림 5] THX1138
(그림 출처:
위키피디아, 2012)

스타워즈로 유명한 미국의 조지 루카스 감독이 영화학과 재학 시절에 만들었던 학생작품을 상업영화로 블로루업 한 1971년 작품이다. 지구문명의 미래에 대한 너무나 암울한 묘사 때문에 흥행에는 크게 실패하였으며, 다소 조악해 보이는 특수효과, 감독이 직접 집필한 각본 등 저예산 SF의 일반적인 공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배경은 개인의 욕망을 비롯한 모든 것이 철저히 통제되는 미래 사회이며, 모든 사회 구성원은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며 철저히 감정을 억누른 생활을 해나간다. 생산성 향상이 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인간은 단순한 도구적인 존재일 뿐이며, 계획된 출산이 아닌 남녀 간의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섹스는 금지되어 있다. 주인공인 THX1138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인데,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에 힘들어 한다. 정부가 THX1138에게 지급하는 신경안정제를 LUH3417이 조작해서 생긴 불안이며, LUH3417은 그의 사랑을 얻기 위해 그런 행동을 저지른 것이었다. 둘은 충동에 의한 사랑을 나누게 되며 당연히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된다.

주인공 THX1138은 자유를 찾아 자신이 속한 사회를 탈출하는 여정을 떠난다. 지하세계를 탈출하여 막 지상으로 나가기 직전 경찰관이 그를 못 나가게 제재하지만, 갑자기 중앙정부에서 “더 이상 THX1138을 추격하는 것은 경제성이 떨어지니 추격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온다. THX1138은 결국 지상으로 나와 자유를 찾는다.

가령 미국 정부를 비판한 영화를 만든다든가, 한국 정부를 비판한 영화를 만든다든가 하는 경우는 많지만 THX1138처럼 지구문명 자체를 비판의 대상으로 놓는 영화는 흔하지 않다. THX1138과 스토리타임의 사이에 별다른 내용적인 유사성은 없으나, ‘지구문명 자체를 비판하자’는 파격적인 발상은 어디까지나 조지 루카스의 THX1138에서 온 것이다.

THX1138에서는 미래의 어떤 지하세계를 설정해서 현재의 지구문명을 우회

적으로 비판하는 접근방식을 사용했다면, 스토리타임은 지구보다 발달된 문명에서 온 외계의 존재의 입을 빌어 현재 지구문명의 결혼제도와 종교제도를 대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접근방식을 취했다. THX1138의 경우, 대사에는 비판의식이 거의 드러나 있지 않으며, 그냥 사회구성원들이 지하세계에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만 할 뿐이어서, 문명을 비판하는 방식에 있어서 본 작품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2.1.5 나는 금성에서 왔다

[그림 6] 나는 금성에서 왔다 (그림 출처: Daum 책)

어렸을 때 우주선을 타고 금성에서 지구로 이주하여 미국에서 지금까지 쉴라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한 여인이 집필한 책이다. 옴넥 오넥은 그녀의 금성에서의 본명이며, 그녀는 이 책을 통해 UFO의 비행원리를 비롯하여 금성의 역사와 문화, 예술, 과학 등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먼저, 본인은 외계문명의 존재를 믿고 있는 상황에서 본 작품을 집필했다는 것을 밝힌다. 이것은 스타트랙(STAR TREK)의 원작자 진 로든베리(Gene

Roddenberry)도 마찬가지였으며, 태양계에서 지구 이외의 다른 지적문명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철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굳이 외계인 소재의 SF영화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평소 믿음에 배치되는 내용의 영화를 매우 열심히 만들어 봐야 관객의 공감을 얻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서적은 지구문명과 외계문명의 차이점을 조사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특히 본 작품의 등장인물들의 가치관을 설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서적은 금성인이 금성의 역사와 문화와 과학에 대하여 기술한 책이지만 본 작품의 등장인물들은 화성에서 왔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서적의 모든 내용을 작품에 아무렇게나 적용한 것은 아니다. 서적을 자세히 읽다보면, “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외계문명은 이러이러하다”는 식의 기술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화성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시나리오 작성에 활용하였다.

가령 스토리타임의 등장인물들은 “지구의 결혼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스탠스를 취하는데, 등장인물들의 이러한 태도는 “지구와 같은 식의 결혼제도는 지구를 제외한 다른 외계문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서적의 내용을 기반으로 설정된 것이다.

스토리타임의 등장인물을 금성인으로 설정했으면 서적의 모든 내용을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었겠지만 굳이 화성인으로 설정한 까닭은, tvN의 <화성인 바이러스>와 같은 TV프로 제목에서 보듯이, 금성인보다는 화성인이라는 단어가 주변에서 보다 많이 쓰이고 우리에게 더 친숙하기 때문이다.

제 3 장 스토리타임의 기획

3.1 시놉시스

화성에서 두 사람의 장교가 지구로 파견된다. 두 사람은 각자 따로 거주하며 한국에서 나름대로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데, 정보장교는 지구생활에 너무도 빨리 적응하여 벌써 직장생활을 시작한 상태이다. 과학장교는, 지구를 파괴할 필요성이 있나 없나 조사한다는 본연의 임무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구에서 특별히 돈벌이는 하지 않고 있다.

거의 지구에 도착하자마자 과학장교는 지구 여자와 교제를 시작하는데, 본인 딴에는 '지구인의 사고방식을 보다 잘 이해하려면 이성과 교제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시작한 거였다.

교제를 시작한 지 3개월 후, 지구 여자가 과학장교에게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를 제안하는데, 과학장교는 "결혼이 뭔데"라고 대답했다가 따귀를 맞는다. 과학장교는 정보장교에게 "결혼제도가 무엇하는 제도인지 철저히 조사해보라"는 지시를 내리고, 얼마 후 상암동에서 만나 보고를 받는다.

과학장교와 정보장교가 상암동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우연히 종교 이야기가 나와 이야기가 그 쪽으로 새버렸는데, 종교 이야기를 듣던 과학장교가 문득 "지구를 파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해버린다.

과학장교는, 두 사람이 같이 지구를 빠져나간 뒤에 화성에서 지구 쪽으로 핵미사일을 발사해서 지구를 파괴할 생각이었으나, 며칠 전에 결혼을 제안했던 지구 여자로부터 갑자기 문자 메시지가 도착하면서, 지구 파괴는 무기한 연기되어 버린다.

과학장교와 정보장교가 서로 헤어진 후, 과학장교는 지구 여자를 다시 만났

으나, 결혼에 대한 이해 차이로 또 다시 따귀를 맞게 되고, 과학장교는 다른 여자를 사귀어 보자는 생각에 이 여자 저 여자 헌팅을 다니기 시작한다...

3.2 등장인물

화성에서 온 과학장교(최준열 분): 화성에서 왔고 지구에 3개월 전부터 정착해서 분당에서 살고 있음. 기본적으로는 군인이며, 직급은 과학장교임. 지구가 우스운 행성이라고 생각함. 시니컬한 편이고, 논리적&비판적 사고가 지나친 면이 있음. 지구에 온 목적은 **지구를 파괴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

화성에서 온 정보장교(심종환 분): 과학장교와 같이 온 정보장교이다. 화성에서 가끔 전달되는 지시에 따라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함. 이해심 많고, 친절한 성격의 소유자여서, 지구생활에 벌써 적응해 직장생활을 하고 있음. 과학장교에게 지구관습에 대해 설명할 때, 마치 자신이 지구인인 것처럼 설명하는 경향이 있음. 지구인의 사고방식을 지나치게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소화시켜 버렸기 때문임.

지구인 이승하(본인): 커피숍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다가 과학장교를 알게 됨. 과학장교가 외계인인 것을 듣고도 별로 놀라지 않음. 자립심이 없고, 남자에게 의존하는 성격.

지구인 이세일(본인): 이승하의 남자친구. 평범하고 보수적. 돈이 많은 편.

3.3 시나리오

1. EXT. 분당-상암. 오후

과학장교가 분당에서 출발하여 여러 가지 대중교통을 바꿔 타며 약속장소인 상암동까지 가고 있다. 스크린에는 과학장교의 시선으로 바라 본 서울 시내 풍경이 스쳐간다.

과학장교

(NA)나는 화성인이다. 지구에 온 지는 3개월 정도 되었다. 지구에서의 나의 임무는, 지구를 파괴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임무와는 별도로, 3개월 전부터 지구 여자를 사귀고 있었는데, 여자가 나보고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했다. 나는 "결혼이 뭔데 이 년아"라고 했고, 그녀는 나를 때렸다. 에효... 결혼이 대체 뭘까. 그래서 나하고 같이 온 정보장교 보고, 결혼이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다.

Dissolve

KGIT 13층에 혼자 앉아 있는 과학장교...조지아 커피를 쭉 들이킨다. 이 때 정보장교가 저벅저벅 다가오고, 과학장교와 정보장교가 서로에게 경례를 한다. 과학장교 옆에 정보장교가 슥 앉는다.

과학장교

조사해 봤어?

정보장교

어, 그...결혼이 뭐냐 하면, 남자 한 명하고 여자 한 명이 평생 동안 독점적인 섹스 계약을 맺는 거더라고...다른 상대하고 섹스를 하고 싶으면, 일단 결혼계약을 깨야 되

과학장교

음 그러면, 결혼을 안 하면 여러 명하고 자도 되는 거야?

정보장교

그렇지!

과학장교

에이, 그게 뭐야! 그럼 결혼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냐! 대체 그런 계약을 누가 하냐!

정보장교

지구의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만든 제도야. 물론 그닥 성공적인 제도는 아니지만...

과학장교

지구인들은 참 어리석네. 결혼한 지 한 1년 지나면 금방 불행해질 게 눈에 훤히 보이는구먼

정보장교

국가의 이해관계하고 일치하는 측면도 있어. 아무튼 쉽게 없어지기 힘든 제도야.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가 1대1로 대응되도록 국가가 관리를 안 하면, 우월한 남자는 수천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열등한 남자는 평-생 여자 손목 한 번 못 잡아볼 거 아냐. 영세민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 여러나라에서 결혼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과학장교

영세민은 돈 없는 사람을 영세민이라고 하는 거 아냐?

정보장교

아 그러니까, 성적(sexual) 영세민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니까

과학장교

그렇구나...(잠깐 멍 때림) 그런데 말야

정보장교

어

과학장교

지구문명은 교환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문명이잖아. 등가의 서비스를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 화폐가 생긴거고...여자가 남자한테 평생 대주는 대신, 남자는 여자한테 평생 뭘 해 주는거야?

정보장교

매달 생활비를 주지. 근데 집집마다 상황이 조금씩 달라. 대주기도 하면서 남편 생활비까지 여자가 주는 집도 있어(과학장교가 헉하고 놀람). 맞벌이 하는 집도 있고...근데 아무튼, 절대 다수의 집은 방금 내가 말한 그런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지

과학장교

야- 절대 다수의 가정이 그런 식으로 굴러가고 있어? 대단하네. 아니, 지구문명은 어쩌다가 그렇게 대다수의 여성이 남자의 성 노예가 되어버린게야?

정보장교

수천년 전에는, 여자는 정치만 하고 모든 노동을 남자들이 다 했대

과학장교

그,그런데?

정보장교

그러다가 열등해서 소외된 남자들이 빡 돌아

서 반란을 일으켰대!

과학장교

왜?

정보장교

아니 뭐...육체 노동면에서도...열등한 사람들은 무거운 것도 잘 못 들고, 우월한 남자는 무거운 거 잘 들고...그리고 밤이 되면 남자가 성 노예가 되서 여자를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영세민은 고추가 작아서 권력자를 흥분을 잘 못 시키니까

과학장교

에효, 그 놈의 영세민

정보장교

어, 맞아! 결국 성적 영세민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킨 거지. 당시는 성선설을 믿던 시대였는데, 열등한 남자들이... 어...만약 성선설이 틀렸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서 여자들을 겁 주기 시작한 거야!

과학장교

아니 뭐...그러면 우월한 남자들을 동원해서 제압하면 되는 거 아냐?

정보장교

바로 그거야! 악한 자들을 제압하려면,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게 안전하다! 그러므로 만약을 대비해서, 남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이런 이야기를 들고 나온 거야! 근데 그게 먹혔어! 그러면서 열등한 남자들이 우월한 남자들까지 반란에 동참시킨 거야!!

과학장교

오! 그거 정말 굿 아이디어네! 우월한 남자들이야, 자기들 신분이 상승하는데 반란에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어!

정보장교

그래! 그래서 지구문명이 지금처럼 된 거야!!

Dissolve

2. INT. KGIT 13층 식당 안. 오후

13층 식당 유리창에 청소부들이 물을 뿌리고 있고, 그런 가운데 테이블에서 둘의 대화가 이어진다.

과학장교

와- 성적 영세민들이 어마어마한 사기를 계획했구만...그러면, 성악설은 일종의 사기극이네? 사실은 성선설이 맞는 거잖아?

정보장교

그렇지 뭐...선과 악을 소재로 한 대다수의 신화들이 다 구라라고 생각하면 되

과학장교

근데 말야

정보장교

어

과학장교

내가 차 타고 오면서 보니까 말이야, 한국엔 교회니 성당이니 이런 게 참 많더라. 거기 가면 뭐 하는 거야?

정보장교

뭐...이런저런 교리를 가르치지

과학장교

교리를 어기면 어떻게 되? 경찰에서 체포하나?

정보장교

아니, 그런 건 아니고...그런 데 가면 "이 교리대로 안 하면 하느님이 벌 주신다"라고 겁을 주지 ㅎㅎㅎ

과학장교

하느님이란 게, 인류 최고의 영적 스승을 말하는 건가? 스타워즈에 나오는 요다를 보면, 죽어서 영혼이 된 다음에도 계속 루크한테 어드바이스를 주잖아. 요다 같은 존재를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야?

정보장교

아니, 하느님이란 건 신을 말하는 거야

과학장교

(기가 막히다는 투로) 야, 신은...그냥 우주 전체가 신이잖아!

정보장교

물론 우리 화성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근데 지구인들은, "우주가 신이다"라는 개념 자체를 몰라. 지구인은 신이 어떤 남자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그 남자 인간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가끔 잘못을 하면 신이 인간한테 벌을 줄 때도 있다...이게 대다수 지구인들의 사고방식이야

과학장교

어 이상하다...나도 지구의 최근 역사는 잘 몰라도, 초창기 역사는 약간 아는데, 몇십억년 전에는 우주 전체가 신이라는 걸 모르는 지구인이 하나도 없었어! 어떡하다 지금처럼 된 거지?

정보장교

국가가 만든 규칙들을 국민이 지키게 만드려고 그런 거짓말을 만든 거야. 수천년 전에는 종교와 권력이 하나였거든. 국가가 이런저런 규칙들을 만든 다음에, 국민한테는 "이 규칙들은 하느님이 만든 규칙이다. 하나라도 안 지키면 하느님이 니네를 벌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신이 어떤 남자 사람인 것처럼 인격화를 시켜야 했던 거지

과학장교

아...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아무래도 지구를 파괴하는 편이 낫겠어

정보장교

(막 싫어하는 기색을 나타내며) 아- 왜-!!! (심종환은 지구생활이 좋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구를 파괴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

과학장교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화성 바로 옆 행성에 있어서 우리한테 좋을 게 없어! 그러니까 수천년 전의 지구인들이, 너무 멍청해서 국가의 사기에 속아남어간 거잖아!! 이 사람들은, 뭐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구별할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에 어떤 나쁜 외계인이 나타나서, "화성이 곧 지구를 침공하려고 한다.

그러니 살고 싶으면 너희가 먼저 화성을 사전 공격하라"라는 거짓말을 해도, 이 사람들은 그대로 속을 수밖에 없는 거야!! 당장 다음 주에 그런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자 빨리 지구에서 탈출하자! 탈출한 다음에 지구를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는 거야. 내가 요 앞으로 우주선 하나 보내라고 할께(송수신기 꺼냄)

귀에다 송수신기를 댄 채로 식당 밖 공터(아까 처음에 앉아 있던 곳)로 나오는 과학장교

과학장교

아 여보세요? 나 지구에 내려온 과학장교인데...

(상대편이 뭐라고 말하는데 스크린상에는 안 들림) 아 이런 미친...아 내가 과학장교 최준열이라는데, 무슨 일이냐고? (상대편이 뭐라고 말하는데 스크린상에는 안 들림) 야!!! 지금 전화 받는 사람 이름이 누구얏!!!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미친 놈이 전화를 맘대로 끊네?

정보장교

나한테 줘 봐. 내가 연락해서 보내라고 할께 (송수신기 건네받음)

과학장교

여보세요? 아 저기, 나 지구에 내려온 정보장교인데, 지금 우리 위치 알지? 우리 머리 위로 우주선 하나만 보내...지금 당장

두 사람 머리 위로 우주선 한 대가 다가온다

과학장교

(과학장교의 스마트폰에서 땡- 하는 문자 도착음이 들리고...과학장교는 봉지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문자를 본다) 어, 문자 왔네

"자기야, 그 날 한 말 농담이지? 응? 응?"이라는 문자가 들어와 있다.

정보장교

아, 요새 만나고 있다는 여자야? 빨리 잘못했다고 빌어! 아 저기 일단은...일단은 이리 오라고 해! 괜히 이상한 문자 보냈다가 더 실수하지 말고,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

과학장교

알았어(스마트폰을 조작하여 답문자를 보냄)

정보장교

(송수신기 다시 꺼내며) 아 저기...우주선 필요 없어. 다시 가!

두 사람 머리 위에서 우주선이 사라진다.

Fade
out

과학장교가 버스를 타고 상암동에서 분당까지 이동하고 있는 상황...스크린에는 과학장교의 시선으로 본 강남역의 밤 풍경이 펼쳐진다.

과학장교

(NA) 정보장교가 집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그녀가 상암동에 도착했다. 나는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녀의 제안에 응해서, 그녀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자는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처음에 내가 "우리 계약 맺자!"라고 이야기 했다. 그녀가 무슨 뜻인지 잘 못 알아듣는 듯 했다. 그래서 좀 더 직접적으로 다시 이야기 해 주었다. "아, 그러니까...계약을 맺고 평생 나한테 대주라고!!"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 나를 때렸다. 에효, 이제 다른 여자 찾아봐야지. 아 맞다, 나 지구 파괴해야 되지! 에이, 다음에 파괴하자...

Fade out

3. INT. 교보타워 사거리 씽킹 커피 안. 오전

과학장교가 처음 보는 여자에게 작업을 걸고 있다.

과학장교

그러니까 말이죠, 외계인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UFO를 타고 지구를 방문하는 외계인들이 있고요, 그 담에 지구에 살고 있는 외계인이 있고요...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외계인도 있어요

이승하

어머, 종류가 그렇게나 많아요? 외계인은 UFO 타고 오는 회색으로 된 그런 사람들 밖에 없는 거 아니었어요?

과학장교

아니에요. 그리고 지구에 숨어 살고 있는 외계인도 몇가지 유형이 있어요. 음...그냥 외계인처럼 생겼는데 지구에 숨어 살고 있는 종이 있어요. 이들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인종 전체가 지구로 이민을 온 거죠

이승하

어머 정말요? 어디에 숨어 살고 있는데요? 돈은 어떻게 벌어요?

과학장교

아...솔직히 다른 외계인들의 생활상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고요, 아무튼 그런 애들이 있고...육신은 지구인의 육신인데 영혼이 외계의 영혼인 경우가 있어요

이승하

영혼이요? 그럼 전생에는 화성인이었는데, 이번 생에서 지구인으로 환생했다 뭐 그런 건가요?

과학장교

에이, 그런 경우는 그냥 현생에서는 지구인인 거죠. 그럼 사람까지 외계인으로 분류하긴 좀 그렇죠. 제가 말한 건 워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승하

워크-인이 뭔데요?

과학장교

외계의 어떤 영혼이, 지구에서 환생을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지구인 몸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원래의 영혼한테 허락을 받고 들어가죠. 원래 있던 영혼과 새로 들어간 영혼이 융합해서 새로운 존재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승하

그냥 멀쩡하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업그레이드 된다고요?

과학장교

네 맞아요. 다 커서 결혼까지 한 사람 몸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형체가 없는 외계인도 있어요

이승하

왜 형체가 없어요?

과학장교

더 이상 물질 몸에 집착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냥 에너지 덩어리로만 존재하는 거죠. 보통 그런 존재들을 에테르인이라고 불러요

이승하

아저씨는 어떤 유형의 외계인이에요? 아저씨도 UFO 타고 왔어요?

과학장교

아 저는요, 아직은 말씀 드릴 수 없어요

이승하

그럼 아저씨는 뭘 할 수 있어요? 뭔가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과학장교

어...일단 손을 잡으면 다른 사람의 히스토리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요. 마인드 리딩이라

*고 하죠 ^^*

이승하

어머, 제 전생 좀 봐 주세요...빨리요

과학장교

(매우 흡족해 하며 두 손을 잡고) 음, 당신은 전생에...뭔가 예술 계통의 일을 하셨었네요!

이승하

제가 전생에 어느 나라 사람이었나요?

과학장교

그 때는 나라가 없었어요

이승하

어머, 존나 신기하다. 어 그런데요, 제가 UFO를 본 적이 있거든요. UFO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거죠? 혹시 아무 것도 없는 빈 깡통인데 외계인들이 그냥 초능력으로 움직이는 건가요?

과학장교

어떻게 생긴 UFO를 봤는데요?

이승하

접시 밑에 당구공 세 개 달린 거요

과학장교

아 그거! 그건 금성 거예요! 금성 것도 그렇고, UFO들은 거의 반중력의 원리를 이용해서 날고요, 행성마다 우주선 모양이 다 제각각이에요...

갑자기 커피숍에 이승하 남친이 들어온다. 사실 그 여자는 커피숍에서 자기 남친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과학장교는 그걸 모르고 여자를 꼬셨지만)...

이승하

어머 세일씨, 어서 와!

이세일

어, 차가 좀 막혀서 늦었어

이승하

어, 이 분은...외계인이래 ^^ 자기 기다리다가 여기 커피숍에서 걍 우연히 만난 분이야

이세일

헐, 아...안녕하세요, 외계인님(서로 악수를 한다)

과학장교

*어익후, 오늘 아주 대단한 결심을 하고 나오셨네요 ^^*

이세일

네? 무슨 결심이요?

과학장교

저기요, 오늘 이 여자 분을 호텔로 데려가서 SEX 하는 게 목표죠? 그렇죠?

이세일

헉, 아 ㅅㅂ 몰라요...자기야 빨리 나가자! (여자 데리고 후다닥 나감)

이승하

(두 사람이 같이 나가면서) 자기야, 저 사람 말한 거 정말이야? 그래서 나 아이패드 사주기로 한 거야? 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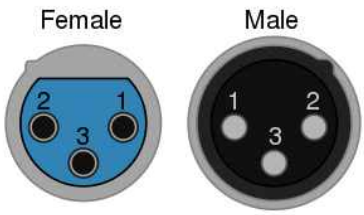
Fade out

3.4 제작시스템 연구

캐논 5D Mark II의 상업적 성공 이후, 7D, 550D, 600D 등 많은 후속 기종들이 선을 보였으나 촬영 이후의 후반 작업 방법론은 거의 바뀐 부분이 없으며, 5D Mark II에 대한 방법론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큰 문제가 없다. 또한 녹음 측면에 있어서도, 5D Mark II용으로 출시된 휴대용 믹서를 600D나 7D에 장착해도 문제가 없다.

또한, 캐논사 웹 사이트의 중요한 자료들이 대부분 5D Mark II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선행연구도 5D Mark II를 기준으로 진행되었다. 5D Mark II로 영화를 제작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3.4.1 동시녹음에 필요한 것



[그림 7] 캐논 XLR단자
(그림 출처: 한국카나레, 2009)

소니 Z7과 같은 동영상 전용 카메라라면 대게 캐논의 XLR 단자를 가지고 있기 마련이나, 캐논의 DSLR에는 그런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5D Mark II 등의 캐논 DSLR에 XLR 붐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휴대용 믹서 제품들이 몇 개가 선보였고, 국내에서도 매우 활발히 사용

되고 있다(캐논 DSLR의 자체적인 내장마이크를 이용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DSLR의 내장마이크는 녹음품질이 떨어져 영화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국내에선 주로 쥬스드링크(JucedLink)사의 제품과 비치텍(BeachTek)사의 제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그림 8 참고), 본 영화에서는 쥬스드링크 CX231과 캐논 600D의 조합이 사용되었다.

[그림 8] 쥬스드링크의 CX231(왼쪽)과 비치텍의 DXA-5D(오른쪽)
(그림 출처: 쥬스드링크, 무비파킹, 2012)

3.4.2 편집에 필요한 것

[그림 9] H.264 로고
(그림 출처: Tomi Engdahl's ePanorama blog, 2010)

5D Mark II의 메모리 카드에 생성되는 동영상 파일은 .MOV 확장자를 가지고 있으며, AVCHD라고도 불리는 H.264 코덱이 적용되어 있다. MPEG4와 H.264가 동의어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MPEG4는 매우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표준이며, 파트 1부터 29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MPEG4 파트 10을 H.264라고 부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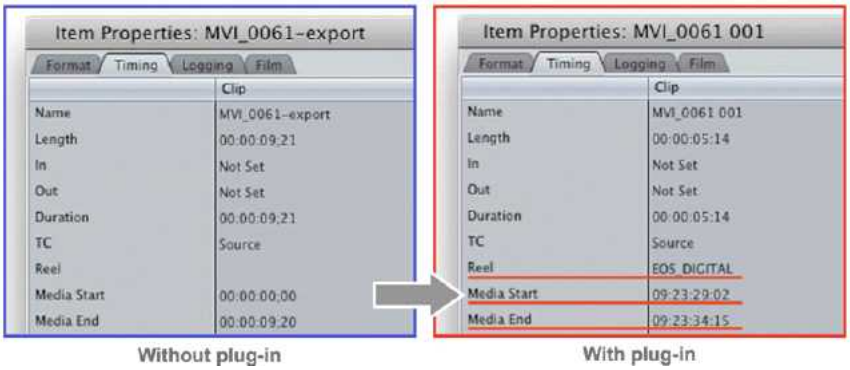
5D Mark II의 MOV 파일을 편집할 때, 윈도우즈 환경에서 작업할 경우 윈도우즈 7 64비트 이상, 어도비 프리미어 CS5 이상이 필요하다. 프리미어가 CS5 버전부터 64비트 응용프로그램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윈도우즈 7 32비트나 윈도우즈 XP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어떤 운영체제 환경에서 작업하건, 프리미어 CS5로 작업할 경우엔 5D Mark II의 MOV 파일의 직접 편집이 가능하다.

Mac OS X 환경에서 작업할 경우, 어도비 프리미어 CS5와 파이널 컷 프로 중에서 본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되는데, FCP로 작업할 경우엔 EOS 무비 플러그인 E1이 필요하다. 해당 플러그인은 캐논사 웹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1 플러그인을 사용한다고 해서 FCP에서 5D Mark II의 MOV 파일을 직접 편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 플러그인은 5D Mark II의 H.264 영상을 ProRes 422 등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뿐이다.

EOS 무비 플러그인 E1의 요구사항, 각 FCP버전에서 지원되는 기능들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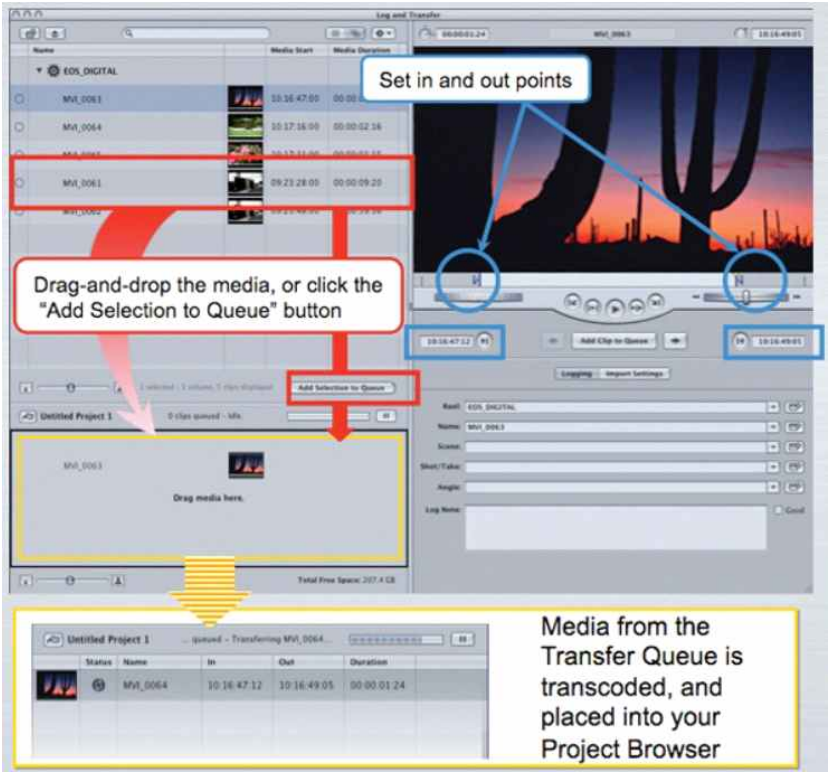
요구사항	FCP 6.0.6 이상 + Mac OS X 10.6.4 이상
FCP7에서 사용할 경우	ProRes 4444/422(HQ)/422/422(LT)/422(Proxy) 또는 Apple Intermediate Codec으로 자동 변환 가능
FCP6에서 사용할 경우	ProRes 422(HQ)/422로 자동 변환 가능
주요특징	Log and Transfer 할 때 필요한 곳만 부분 전송 가능 Create a disk image 기능을 쓰면 CF 카드 전체를 하나의 DMG 파일로 백업 가능 클립을 임포트 할 때, 타임코드가 자동으로 메겨짐(그림 10 참고)

[표 1] EOS 무비 플러그인 E1의 주요 특징
(표 출처: 캐논 USA, 2012)



[그림 10] E1 플러그인을 써서 캐논의 MOV를 임포트 하면,
타임코드가 자동적으로 메겨진다
(그림 출처: 캐논 USA, 2012)

FCP에서 E1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캐논 DSLR 관련 작업을 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CF 또는 SD카드 연결 후, 'File-Log and Transfer'를 선택한다. 그리고 'Action' 메뉴에서 'Preferences'를 선택한다. 'Source'에서 'Canon DSLR'을 선택하고, 'Transcode to'는 ProRes 422 등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OK를 클릭한다. 필요하면 클립의 in, out 포인트를 지정하고 'Add Selection to Queue'를 클릭한다(그림 11 참고).



[그림 11] 클립을 임포트 하는 순서
(그림 출처: 캐논 USA, 2012)

제 4 장 스토리타임의 제작과정

본 작품의 촬영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되었다. 예산을 줄이기 위해 감독이 시나리오를 집필하고 주연을 하고 편집을 하였으며, 오프닝에 들어가는 애니메이션도 제작하였다. 원래는 2회차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실수한 씬을 다시 찍기 위한 재촬영 때문에 3회차로 일정이 늘어나게 되었고, 편집이나 특수효과 등 후반작업에는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4.1 촬영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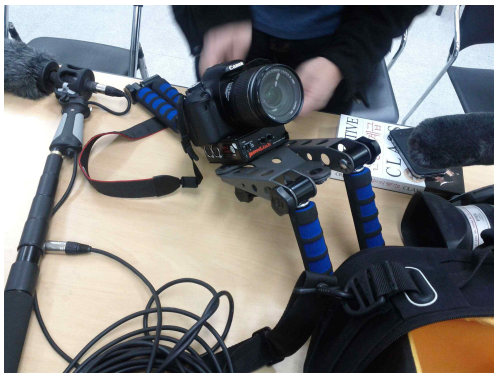
4.1.1 나레이션

[그림 12] 소니 HX9V
(그림 출처: DIGITAL VERSUS, 2011)

본 작품에는 총 2번의 주인공 나레이션 씬이 등장하는데, 나레이션이 나오는 동안 화면에 나오는 길거리 풍경은 위의 촬영일정과는 별도로 감독 최준열 본인이 분당 집<->상암 KGIT 캠퍼스 등하교길에 버스에 탄 채로 소니 HX9V로 틈틈이 촬영한 것이다. 달리는 차에서 길거리 풍경을 찍을 때, 영화나 드라마

촬영현장에서는 주로 특수한 장비를 통해서 승용차 본넷에 DSLR을 고정시켜 촬영을 많이 하지만, 이 부분도 보다 저예산으로 해결해 볼 수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본인 소유의 HX9V를 활용한 것이다. HX9V는 스테디샷(steady shot) 기능이라 불리는 손떨림 방지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손으로 들고 찍어도 마치 어딘가에 카메라를 고정시켜서 찍은 것처럼 부드러운 영상이 얻어진다.

차량 씬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씬들은 앞서 언급한 대로 캐논 600D + 쥬스드링크 CX231(48V로 세팅할 것) + 붐마이크의 조합으로 촬영되었고,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600D+CX231의 조합에 삼각대 또는 휴대용 리그를 장착하여 촬영하였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붐마이크가 CX231로부터 분리되는 일은 없었다.



[그림 13] 휴대용 리그+ 600D+ CX231

조명이 도입되면 제작비가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명 사용은 무조건 피하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하지만 반사판은 사용하였다). 따라서 600D로 촬영되는 모든 씬들은 100퍼센트 주간에 촬영되었고, HX9V로 찍은 씬 중에만 야간 씬이 존재한다. HX9V는 전문가용 DSLR이 아닌 일반 소비자 타겟의 디지털 카메라이기 때문에, 야간에 찍건 주간에 찍건 항상 안정적인 결과물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어서 굳이 야간 촬영을 피할 이유가 없었다.

4.1.2 씬 1

정보장교가 과학장교를 만나러 걸어가는 부분은 휴대용 리그를 사용하여 핸드헬드로 촬영하였으며, 이후의 컷들은 삼각대와 리그를 상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해가며 촬영하였다.

[그림 14] 씬 1 주요 장면

캐논 DSLR로 촬영한 영상은 동화책처럼 아름다운 색감이 특징인데, 이러한 화사한 색감은 SF라는 장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씬 1, 2의 대부분의 컷들에 대해 RGB 중 블루 값을 40 정도 증가시켜 주었다.

4.1.3 씬 2

[그림 15] 씬 2 주요 장면

그림 15의 좌측 하단은 UFO 도착 씬인데, 구글의 이미지 검색에서 발견된 한 UFO 사진을 크롭해서 애프터 이펙트를 통해 실사와 합성을 하였다. UFO를 3D로 모델링해서 실사와 합성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이라고 할 순 없

지만, 3D 그래픽은 별도의 전문 인력이 필요한 반면에 AE를 통한 2D 합성은 감독 혼자서도 간단히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라고 하겠다(AE 합성 쪽이 시간도 훨씬 덜 소모된다). UFO 도착 씬의 첫 버전에서는 3D 모델링 된 우주선을 실사와 합성하였고 두 번째 버전에서는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찾은 JPG 파일을 실사와 합성하였는데, 첫 번째 버전과 두 번째 버전을 여러 관객들 앞에서 시연한 결과 관객이 3D 모델링 된 우주선을 더 뛰어난 특수효과로 느낀다는 특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4.1.4 씬 3

[그림 16] 씬 3 주요 장면

오전 시간대에(AM 10시-12시) 씽킹 커피라는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촬영이 진행되었으며, 오전 촬영이었지만 실내에서 그것도 기둥 때문에 태양빛이 가려

지는 자리에서 촬영을 해서 광량이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다.

씬 3의 경우 인물들의 얼굴이 지나치게 빨갛게 찍혔는데, 이 때문에 RGB 중 레드 값을 30 정도 감소시킬 필요가 있었다. 씬 3은 남녀의 커피숍 씬이므로, SF적인 색감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어 블루 값을 높이는 조정은 하지 않았다.

4.2 CG오프닝과 엔딩 제작과정

4.2.1 CG오프닝

[그림 17] 오프닝 주요 장면

오프닝은 애프터 이펙트로 만든 세 개의 애니메이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애니메이션은 인터넷에서 구한 태양계 일러스트와 고해상도 UFO 이미지를 이용해서 만들었으며, 줌 기능과 위치이동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포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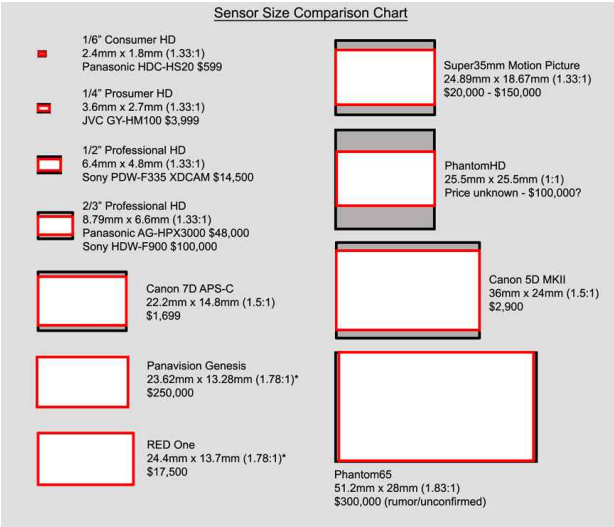
샵에서 태양계 레이어와 UFO 레이어로 된 PSD 파일을 만든 뒤, PSD 파일 전체를 애프터 이펙트에서 임포트 해서 작업하였다.

UFO가 고속으로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한반도로 강하하는 두 번째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maps.google.co.kr에서 12가지 사이즈로 한반도 이미지를 캡쳐해서 작업에 활용하였다.

4.2.2 엔딩

엔딩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여러 개의 텍스트 오브젝트를 시간에 따라 번갈아가며 디스플레이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4.3 DSLR영화의 화질



[그림 18] 5D Mark II, 7D와 레드원,
수퍼35mm의 사이즈 비교
(그림 출처: 영화진흥공화국, 2010)

5D Mark II의 동영상 기능에 가해진 여러 가지 제약에 대해서 사용자들은 캐논사에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하였고, 5D Mark II의 동영상 기능을 한층 업그레이드 한 7D가 발매된다. 5D의 풀 센서보다 작은 APS-C 센서를 가지고 있었지만 영화촬영용 슈퍼 35mm에 오히려 더 가까웠고, 5D Mark II의 부족했던 부분들이 대부분 보완되면서(동영상 촬영 시 셔터스피드, 조리개 조절 가능, 24/25/30/50/60 등 다양한 프레임 레이트 지원)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였다. 5D Mark II와 7D 모두를 사용해 본 프로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면, 화질은 5D Mark II가 최고이지만, 7D는 5D Mark II에 비해 심도의 여유가 좀 더 있다고 한다(영화진흥공화국, 2010).

SBS 주말드라마 <여인의 향기>의 경우, 5D Mark II가 7D보다 가격대가 더 높고 화질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7D가 메인으로 사용되고 5D Mark II가 보조카메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탱고 피플, 2011).

정리해 보면, 하위모델이긴 하지만 7D가 영화 촬영에 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스토리타임에서는 비용 문제로 7D를 도입하지는 못했으나, 7D의 동영상 메커니즘을 그대로 적용하였다는 600D라는 저가형 모델을 사용하였다. 600D로 촬영된 소스들을 프리미어 CS5로 편집한 최종 결과물을 여러 종류의 디스플레이 장비에서 상영해 본 후 우리가 내린 결론은, 이 정도 영상품질이면 HD방송에 내보내기에 손색이 없고, 영화관에서 2K로 상영하기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5D Mark II를 비롯하여 아직은 4K 촬영을 지원하는 DSLR은 없다. 4K로 상업영화를 제작할 것이 아니라면, 캐논의 DSLR은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 중 하나가 된다.

레드원이나 캐논 C300 등의 영화용 카메라는 4K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영화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영상은 2K 영상이며, 4K 영사기를 갖춘 상영관에서도 2K 해상도의 소스를 상영하는

경우가 많다. 4K로 촬영된 소스는 CG 합성에 유리하다는 장점도 있으나, 오토데스트 마야 등의 3D 그래픽스 소프트웨어를 영화작업에 도입할 생각이 없고 본 작품의 경우처럼 애프터 이펙트로 실사와 JPG 이미지를 합성하는 정도에 만족할 것이라면, 사실상 4K 카메라를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는 거의 없어지게 된다.

오히려 관객 입장에서는, 1280*720 해상도로 촬영되었는가 1920*1080 해상도로 촬영되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42인치 이상의 PDP, LCD TV들이 급속도로 보급됨에 따라, 720p와 1080p의 퀄리티의 차이를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화질에 대해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컴퓨터로 볼 땐 자연스러워 보였던 DSLR영화도 삼성 파브(PAVV)나 엘지 인피니아(LG Infinia)와 같은 240Hz LED TV에서 보면 일부 씬이 매우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storytime.mp4 파일이 담긴 USB메모리를 42인치 엘지 인피니아에 연결하여 시청해 본 결과, 소니 HX9V로 찍은 컷들과 600D를 핸드핼드로 들고 찍은 컷들은 화면이 너무 급격하게 출렁거려서 정상적인 시청이 불가능했다. 삼성의 경우 MEMC(Motion Estimation/Motion Compensation-동작 예측 및 동작 보정) 기술을 통해 소스의 프레임 레이트가 240Hz가 아니더라도 중간중간에 예상치의 그림을 만들어 넣어서 초당 240개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엘지의 경우, 역시 MEMC를 통해 예상치의 그림을 넣어서 120Hz로 만든 뒤, 240Hz 라이브스캔을 통해 최종적으로 240Hz의 영상을 보여준다(TECHJUN, 2009). 컴퓨터로 볼 땐 초당 24프레임만 보이기 때문에 촬영시 많은 흔들림이 발생했던 영상도 약간만 흔들렸던 것처럼 보이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최신 LED TV에서는 초당 120장 이상 그림을 보여주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감춰졌던 흔들림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동료 대학원생이 소니 Z7으로 촬영한 영상은 240Hz LED TV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였는데, 이는 Z7급의 비디오 카메라들에 내장된 스테디샷 기능이 충분히 강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소니 HX9V처럼 초보적인 수준의 스테디샷 기능이 내장된 카메라나, 캐논 600D처럼 스테디샷이 아예 없는 DSLR로 영화를 찍을 땐 트라이포드를 사용한 샷 외에는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4.4 DSLR영화의 음질

HD방송이나 2K 극장상영에도 대응이 가능한 캐논 DSLR의 강력한 화질과는 대조적으로, 음질 부분은 아직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 앞서 말한 대로 캐논 DSLR의 내장마이크는 음질이 매우 조악하여 영화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휴대용 믹서를 사용해서 XLR용 붐마이크를 연결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휴대용믹서와 붐마이크를 함께 사용해서 촬영한 영상의 경우, 볼륨을 최대로 해서 들어보면 “스-”하는 화이트 노이즈가 상당한 수준으로 들린다.

영화에 배경음악이 깔린다든가, 우주선이 등장하는 씬에서 우주선의 엔진음이 화면을 뒤덮는다든가 하는 상황에서는 관객이 거의 눈치를 챌 수 없지만, 고요한 실내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씬으로 바뀌면 상당히 인지가능한 수준이 된다.

현 상황에서 가장 완벽한 해결책은, 붐마이크는 DSLR에 연결하지 말고 휴대용 타스캄(TASCAM) 레코더 등의 별도의 레코더에 연결해서 촬영을 진행한 뒤, 나중에 캐논 DSLR의 영상데이터와 레코더의 음성데이터를 합치는 방법이다. 물론 이렇게 되면 모든 컷의 촬영에 있어 시작 부분에서 슬레이트를 쳐주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슬레이트 소리가 기록된 부분이 영상데이터와 음성데이터를 일치시키는 기준점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방법대로 하면 음질

면에서는 최고의 결과가 나오겠지만, 편집 작업에 걸리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단점이 있다. 저예산으로 빨리 찍고 빨리 끝내는 DSLR영화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성격이 변하게 된다는 안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DSLR 동시녹음과 관련해 한가지 방법이 더 있긴 하지만, 본 작품의 경우 시간이 촉박하여 해당 방법을 시도해 보지는 못했다.[1)]

4.5 DSLR영화의 용량과 배포

스토리타임의 경우, H.264에 1080p(1920*1080 해상도의 프로그레시브 방식의 영상)로 렌더링을 하면 3.16GB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토리타임을 관람자에게 배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DivX나 WMV 등은 산업표준이라 볼 수 없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H.264로 배포하는 방안에 대해서만 논하기로 한다).

4.5.1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방법

현재로선, 1080p로 영상을 배포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론은 유튜브이다. 유튜브의 경우, 현재는 1080p, 720p, 480p 등 다양한 해상도와 H.264를 포함 다양한 포맷을 지원하고 있다. 유튜브에서 허용하는 최대러닝타임은, 처음 시작한 사용자의 경우엔 15분이며, 일정 기간 열심히 서비스를 사용하면 15분 제약이 풀리게 된다.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영상을 보는 것이므로, 그렇게 고사양의 PC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

1) 붐마이크를 타스캄 레코더에 연결한 후, 타스캄 레코더와 캐논 DSLR의 사이에 세스콤 감쇄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법도 있다. 국내에선 세스콤 감쇄 케이블을 취급하는 곳이 없으므로 미국 웹 사이트(http://www.sescom.com)에 직접 주문해야 한다.

4.5.2 인터넷을 통해 파일을 전달하는 방법

배포하는 또 다른 방법은, 파일을 다음(Daum)이나 KT 클라우드 서비스에 업로드 해놓고 클라우드 자체 내에서 제공되는 <메일로 보내기> 기능을 이용하거나 다음 대용량 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파일 전달 자체는 매우 쉽지만, 관람자가 파일을 받은 이후가 문제이다. 현재 1080p 해상도의 H.264 영상을 원활하게 재생할 수 있는 컴퓨터를 보유한 가정은 그렇게 많지 않다. 컴퓨터에서 1080p H.264 영상의 원활한 재생이 가능하려면, 표 2와 같이 최신 운영체제, 프로세서와 H.264 가속이 가능한 최신 GPU가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환경	H.264 코덱이 우선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윈도우즈 XP 사용자의 경우, H.264 코덱을 구입해서 설치하거나, H.264가 내장된 동영상 플레이어를 구입해서 설치해야 한다(파워DVD 등). 윈도우즈 7의 경우, 운영체제에 마이크로소프트 DTV-DVD 비디오 디코더가 내장되어 있다. 윈도우즈 7에 내장된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로 H.264 영상을 열면, 알아서 마이크로소프트 DTV-DVD 비디오 디코더로 재생이 된다. Mac OS의 경우, Mac OS X 계열은 운영체제에 H.264 코덱이 내장되어 있다.
하드웨어 환경	최소한 듀얼코어 이상의 프로세서(코어2듀오 이상 권장)와 엔비디아 8400GS 이상의 GPU가 필요하다. VGA 제품의 박스에 H.264 가속을 지원한다는 식의 설명이 쓰여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최근 판매되고 있는 인텔의 i3/i5/i7 프로세서의 경우 싱글코어 모델은 아예 존재하지 않으므로, i 시리즈 중에 H.264 재생이 원활하지 않은 프로세서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표 2] 1080p H.264 영상의 원활한 재생을 위한 컴퓨터의 조건

아직은 절대 다수의 가정이 표 2의 조건에 미달하는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파일 기반의 배포 방법은 대중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 사용자가 H.264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AV기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일단 인터넷을 통해 H.264 파일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면, 사용자는 해당 파일을 USB메모리에 담아 AV기기에 연결해서 거실에서 관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최근 출시

되는 Full HD TV나 동영상 플레이어들(블루레이 플레이어, DivX 플레이어 등)은 대부분 USB메모리나 USB외장하드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4.5.3 광디스크로 전달하는 방법

광디스크로 전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MOV 파일이나 AVI, MP4 파일로 된 최종 결과물을 DVD-R이나 Bluray-R에 단순 백업하여 전달하는 방법이다. 블루레이 타이틀 저작도구가 없어도 누구나 쉽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며, H.264 파일의 재생을 지원하는 AV기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디스크를 기기에 삽입하여 감상하면 된다. 물론 H.264의 원활한 재생이 가능한 최신사양의 PC에서 감상해도 무방하다.

그 다음은 BDMV(Blu-ray Disc Movie) 또는 BDAV(Blu-ray Disc Audio/Visual) 디스크를 제작하여 전달하는 방법이다. 블루레이 타이틀 저작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BDMV나 BDAV 디스크를 제작하여 배포하면서 블루레이 플레이어에서만 재생하라고 관람자에게 일러주면, 관람자 입장에서는 혼란이 크게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의 경우, AV기기 사용자가 자신의 기기 스펙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생이 안 될 경우 정확한 원인 파악이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헐리우드 영화 디스크들이 BDMV 규격대로 제작되어 있으며, BDAV는 개인이 촬영한 영상을 수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보다 단순화된 규격이다. BDAV는 아무런 인터랙티브한 기능이 없으며, 디스크를 블루레이 플레이어에 넣으면 단순히 영상이 재생될 뿐이다. 영화 디스크를 넣었을 때와 같은 메인 화면이 나타나지 않는다. 일반적인 BDMV 디스크의 경우, 루트 디렉토리에 BDMV 디렉토리가 있으며, 그 안에 PLAYLIST, CLIPINF, STREAM 등의 디렉토리가 있다(위키피디아, 2012).

제 5 장 결 론

과거엔 주로 작품의 퀄리티를 억지로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저예산 SF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나 5D Mark II 이후로 저예산으로 높은 퀄리티의 영상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본 작품의 경우 캐논 600D와 각종 PC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저예산으로 높은 퀄리티의 단편 SF영화를 만들자는 목표 하에 작품의 프로덕션이 진행되었다.

또한 스토리텔링 면에서도, 타당한 근거 없이 외계인을 무조건 괴물로 묘사하는 것에서 탈피, 여러 가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외계인을 지적인 존재로 묘사하는 현실적인 스토리라인을 제시하였다.

조명 사용을 피하는 방향으로 프로덕션 계획을 짰고 감독이 직접 각본, 주연, 편집, CG를 제작했기 때문에 감독을 제외한 스태프는 촬영 감독과 붐마이크 담당자 뿐이었으며, DSLR과 각종 PC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작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저예산으로 프로젝트를 마치는 것이 가능했다. 예산은 극히 적게 소요된 반면, 완성된 작품은 2K 극장상영과 HD방송에 문제가 없는 화질을 보여주었으며, 음질에서 약간 문제점을 보였지만 이번 작품에서 쌓인 노하우를 활용하면 차기 작품에서는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점이라고 판단되었다.

극장상영이나 HD방송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디지털 배포와 관련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파일을 직접 배포할 경우엔 다운로드 받은 1080p H.264 파일을 원활하게 재생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생겨날 것이다. 만약 스토리타임이 시리즈물로 만들어진다면, 기존의 공급방식 중에서 고른다면 방송사를 통한 서비스 내지는 유튜브를 통한 배포 정도가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1080p의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직접 대중에게 전달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 보고 싶다. 2011년에 파라마운트에서 공포영화 터널(The Tunnel)을 토렌트를 통해 전 세계의 네티즌들에게 무료 배포한 사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러한 직접 전달방식이 배급업자, 극장주, IPTV 사업자 등등을 모두 건너뛸 수 있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완성한 영화를 토렌트에 업로드 하는 것은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렇게 배포할 경우에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mwultong Blog (2007.10.24). DSLR이란? SLR의 뜻 의미, DSLR 카메라의 장단점. [URL]http://mwultong.blogspot.com/2007/10/dslr-slr-dslr.html

베타뉴스 (2009.1.14). 캐논 5D마크2, 레드원과 HD 동영상 대결에서 승리해. [URL]http://www.betanews.net/article/441300

손보욱, 민경원 (2012). 영화제작에서 DSLR 카메라의 활용성에 관한 연구.

캐논 코리아 (2010.7.20). 미드 '하우스' 시즌 6 마지막 에피소드 캐논 EOS 5D Mark II로 독점 촬영. [URL]http://www.canon-ci.co.kr/actions/CompanyUserInfoNewsAction?cmd=view&news_idx=4501

Daum 영화 (접속일 2012.5.14). 심야식당 시즌 1. [URL]http://movie.daum.net/tv/detail/main.do?tvProgramId=55352

위키피디아 (2012.5.6). 트릭. [URL]http://ko.wikipedia.org/wiki/%ED%8A%B8%EB%A6%AD_(%EB%93%9C%EB%9D%BC%EB%A7%88)

Daum 책 (접속일 2012.5.15). 나는 금성에서 왔다. [URL]http://book.daum.net/detail/book.do?bookid=KOR9788994287034

한국카나레 (2009.6.9). 알기 쉬운 오디오커넥터 이론. [URL]http://www.canare.co.kr/solution/bbs/smboard.asp?bGroup=1&bid=ha06&mode=view&idx=406

영화진흥공화국 (2010.10.8). DSLR 영상촬영시대가 열리다. [URL]http://0jin0.com/1901, http://0jin0.com/1902

무비파킹 (접속일 2012.5.16). 5D Mark II용 XLR Adapter. [URL]http://www.movieparking.co.kr/xe/rental_record/11101

탱고 피플 (2011.8.15). 드라마 “여인의 향기” 촬영카메라, 캐논 7D.
[URL]http://cafe435.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LdpQ&fldid=gLnq&contentval=0006Dzzzzzzzzzzzzzzzzzzzzzzzzz&nenc=&fenc=&q=%BD%BD%B7%B5%BF%F6%C5%A9&nil_profile=cafetop&nil_menu=sch_updw
TECHJUN (2009.5.17). LED TV 240Hz의 비밀.
[URL]http://bzt-inside.tistory.com/entry/LED-TV-240Hz%EC%9D%98-%EB%B9%84%EB%B0%80
engadget (2010.4.13). Canon 5D Mark II used to shoot entire House season finale, director says it's 'the future'.
[URL]http://www.engadget.com/2010/04/13/canon-5d-mark-ii-used-to-shoot-entire-house-season-finale-direc/
위키피디아 (2012.7.10). THX1138.
[URL]http://en.wikipedia.org/wiki/THX_1138
JucedLink (접속일 2012.5.16). CX231 Camcorder XLR Adapter.
[URL]http://www.juicedlink.com/audio-preamps-mixers-etc-c-66/jl-cx231
Tomi Engdahl's ePanorama blog(2010.3.26). Is H.264 a legal minefield?.
[URL]http://www.epanorama.net/blog/2010/03/
캐논 USA (접속일 2012.5.16). EOS Movie Plugin-E1 for Final Cut Pro: Key Features & Sample Workflow. [URL]http://www.usa.canon.com/cusa/home
Digital Versus (2011.2.1). Sony Cyber-shot HX9V: A Suprise Superzoom.
[URL]http://www.digitalversus.com/sony-cyber-shot-hx9v-suprise-superzoom-n17647.html
위키피디아 (2012.7.14). Blu-ray Disc.
[URL]http://en.wikipedia.org/wiki/Blu-ray_Disc

ABSTRACT

A study of producing a low budget film using a DSLR camera focusing on the short movie 'STORYTIME'

CHOI, JOON YEOL
Department of Newmedia
Korean German Institute
of Technology

STORYTIME is a short SF movie taken with Canon 600D. I made this movie to estimate DSLR camera's suitability for SF movie production. Recently, Canon DSLRs are widely used in film production. But deep research of its production workflow is seldom found.

DSLR camera is a very good solution for shooing a movie, because of its low price, Full HD video ability and high availability of its lenses. That's why this study is valuable.

I encountered many problems regarding using Canon 600D during the project, but I managed to find solutions with the help of the Internet.

These days, no body wants to make a good low budget film in Korea. I hope this study will be helpful for independent film makers who want to use DSLR cameras for movie production.